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신뢰한 이시라” ‘자살 중학생’ 수개월간 또래들의 왕따와 학대

### ‘학교와 부모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신 팽배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71:4-5)

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왕따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써 괴롭기만 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대전의 여고생 A양은 일부 학생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따돌림 당하며 무척 힘들어했다고 한다. 사고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담임교사를 찾아갔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대구의 중학생인 B군도 또래로부터 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 학생은 수차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돈까지 빼앗긴 채 온갖 모욕을 당하는 등 수난도 겪어왔다고 한다.

연이어 생기는 중학생 자살 사건을 통해 학교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구타와 금품 강탈은 이제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물고문을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악행'까지 등장했다. 그 잔인성과 흉포함이 어른도 섬뜩하게 만들 정도다.

어른들이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학교 폭력이 조직폭력배를 모방하는 수준까지 잔악해진 것이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 때 그 심각성을 더한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도 감싸줄 보호막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어린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가정,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들은 학부모나 교사에게 속내를 털어나도 해결되지는커녕 오히려 일만 키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이번 대구 사건처럼 혼자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일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사이에 "학교에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신고자 노출에 따른 보복 등도 두렵기 때문이다. 또 학교의 명예 실추나 상급기관의 질책 등을 의식해 가해 학생을 가볍게 징계하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일선 학교들의 풍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은 "학교 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에게는



대구 자살 중학생 학교 방학식이 열린 29일 반 학생 38명과 학부모 대표 및 교직원 10여명이 학교 시청각실에 모여 추모식을 가졌다.

학교 폭력 도를 넘어서...  
집단구타와 금품 강탈  
물고문, 담뱃불로 지지는  
'악행'까지 등장

학교의 명예 실추나 상급기관  
질책 의식해 문제를 덮으려는  
일선 학교들의 풍토도 문제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종합)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5:7-8)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인정과 평판에 한평생 목매어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뿐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낱 풀과 같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에 조종 당하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결국 생명까지도 스스로 버리게 하는 사단의 속임 앞에 어디에도 소망 둘 곳 없는 주님의 다음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알게 하시어 주 여호와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악인과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속이며 죽이려 하여도 주께 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학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증인세대로 이 다음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다음세대들이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24:365제공]

### INSIDE



▶기획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하나님 나라의 창고지기' 조상국 집사

▶관련기사 3, 4, 7면



김용의 선교사 컬럼

##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십시오.”

진리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갈등과 번민을 겪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린 시간은 10년. 자손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합니다. 바로 양자를 삼아 자손을 삼는 것입니다. 사례 역시 늘어가는 자신을 보며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몸 중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최선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말씀에 근거해 정확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를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하와에게 그랬듯이 사단은 우리의 애매모호한 문장 사이를 틈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잠시 위

로를 받았습니.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깊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창 21:11).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육체에서 난 최선의 산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은 철저히 인간에 의한 최선의 산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서 완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주님의 주권을 섞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립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서 난 것들, 우리의 최선에서 난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에서 난 것들, 하나님에게 넘겨지지 아니한 최선의 노력을 철저히 믿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자기의 가시에 찢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

게 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1:6)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최선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리는 믿음뿐 아니라, 취하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길목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읽기, 기도, 순종의 길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체험으로 알고 순종으로 알고 그래서 그 진리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적극적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에 넘겨지지 아니한 우리의 최선의 것이 남아있을 때, 결단하지 않고 다른 열심으로 대신해보려 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 직면치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즉시 마음 자락에서 떼어 버리십시오. 주님의 질문 앞에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 때도 성공했을 때도 주님은 나의 전부이고, 실패하고 비참했을 때도 주님은 나의 전부 이십니다. 생명의 고백을 올려 드리며 약속을 좇아 담대히 나아갑시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떡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소서!’

러시아/니콜라이 몰도바



너희 왕들이 들으라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삿5:3**

살을 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겨울 오후. 간수 몇 사람이 만취하여 니콜라이 몰도바가 수감되어 있는 추운 감방으로 들어왔다. 러시아정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이끌었던 니콜라이 몰도바는 5년의 징역형을 받고 야만적인 감옥에서 복역하는 중이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간수 하나가 니콜라이에게 소리쳤다. 그는 얇은 죄수복 하나만 입은 채 당장이라도 얼음이 얼 것처럼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간수들이 무지막지한 군화발로 등이며 다리며 가리지 않고 걷어차기 시작했다.

드디어 간수들이 나가고, 니콜라이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동료 죄수들은 니콜라이가 많이 다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와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에게 짓밟히는 동안 새로운 찬송을 작곡했어요!” 이어 니콜라이는 방금 작곡한 찬송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장래의 천국에 대해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천국과 천국의 잔치를 소유하게 하소서!”

니콜라이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러시아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그가 몇 해에 걸쳐 작곡한 찬송 악보들을 몰

수하였다. 귀한 노래들을 만드는 데 쏟았던 그의 수백 시간을 단 몇 분 만에 앗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그런 일을 당한 뒤에도 또 찬송을 작곡하였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네! 사랑의 주님이 가져가신 모든 것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네! 주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좋은 일이니 오직 주님을 신뢰하네!”

오늘날 러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작곡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인생의 10퍼센트가 사건이요 나머지 90퍼센트는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지,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태도나 반응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불협화음을 자아내는 음표들을 뒤죽박죽 섞어주거나 침울한 단조의 가락을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만들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광포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가락을 들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당신 삶의 곡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도 에세이

세상의 끝, 티벳에서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열심’



해발 4,71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라고 해서 유명한 티벳의 남초호수 근처. 차로 한참을 달려온 우리 일행은 잠시 호수 근방의 유목민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천막 흙바닥에 거적하루를 깔고 살아간다. 남초호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두 여인을 만났다. 여름이지만 굉장히 쌀쌀한 날씨. 옷소매를 양팔 깊숙이 찢어 넣고, 시린 두 손을 감싸 쥐 채 물동이를 지고 가던 이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를 쳐다본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순응한 채 살아가는 듯한 이들의 순박한 눈망울을 바라보다 문득 이 구석지고 먼 나쁜 땅 끝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리고 곧 이어 깨닫게 되었다. 지구 가장 구석진 동편 끝 한국 땅. 흑암 중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에게로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11:8)

- 사진제공 : WMM

십자가만 사랑하며

#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유병국 선교사 (WEC국제선교회)

“40년간 노방전도한 미스터 게노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

이 글은 지난 2011년 12월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다시복음양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니스웨 백성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3장에는 니스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야기가 나온다. 니스웨 성은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고, 그 성의 외곽은 60마일이나 되는 큰 성이었다. 요나는 하룻길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역사는 요나의 어떠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요나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요나를 통해 니스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기 때문이었다.

무슬림을 순식간에 바꾸시는 하나님

모슬렘 하이스쿨에서 역사와 영어를 가르키는 마호메드 다페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논쟁을 통해 선교사인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찾아 왔다. 하지만 4영리를 가지고 4일 간 4번의 만남을 통해 나는 복음을 전했고, 수업이 끝나는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

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수없이 이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후 지금까지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감비아에 5곳, 이웃 나라에 5곳이나 된다. 그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영국 수정궁 공원 옆, 수정 공원 침례교회 담임목사 프란시스 디슨 목사(Dr. Frances Dixon)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 주인공은 호주 사람 미스터 게노(Mr. Genor)다. 원래 호주의 군인이었던 그는 지금은 파킨슨 병에 걸려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삼킬 수 없다. 그는 한 때 도박 중독에 빠져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동료 군인에게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증거 하기로 하나님께 언약한 후 40년 간 한결 같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를 통해 디슨 목사의 교회 성도가, 호주 아틀레이드 교회의 성도가, 호주 퍼스의 마운틴 플레전트 교회의 수석장로님이, 케직 사경회에서 만났던 영국 목사님 4분이, 남미 과테말라의 케리비안 케직 사경회에서 만났던 선교사 리더 3명이, 미국 아틀란타의 해군기지의 군중장이, 인도 동북부의 선교단체 리더가 한결 같이 미스터

게노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큰 감동을 받은 디슨 목사는 미스터 게노를 찾아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디슨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다. “40년 간 전도를 하는 동안, 단 한 명도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유창한 논리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도 심플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를 통해 맺은 전도의 열매는 그가 맺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이하신 것이다.

부르심에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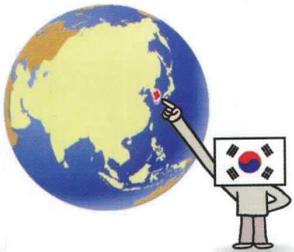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누가 게노에게 쓸 데 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크다 작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지라도...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맺는 것도 아니다. 열매는 주님의 것이요, 영광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뿐이다.

“  
니스웨 백성의 회개는  
요나의 어떠한이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열매는 주님의 것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

## 1면에 이어 -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 반기독교 정서를 극복하고 선교의 나라로!

# South Korea



면적 9만9천㎢  
인구 4천850만  
도시화 81.9%  
종족 한국인 97.8% 기타 2.2%  
종교 무종교 31% 기독교 31% 불교 23.7% 종족종교 7% 기타 4.3%

<출처: Operation World 2010>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새 물질적 축복과 외적 성장에 치중하게 되었고,

오직 성장! 죽어도 성장! 성장이 최고야.

기독교인들이 보수·정치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교회의 좋은 모습은 옛말입니다. 이젠 싫어요.

인터넷을 통해 이런 정서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안티기독교

잊지 말 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 선배들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독교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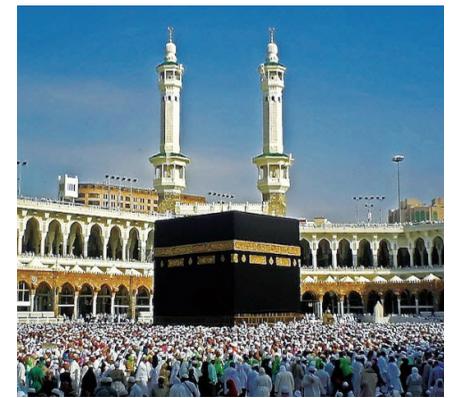
## 선교브리핑

###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인 기도모임 습격해 42명 체포

#### 한꺼번에 수십명 구속은 이례적인 일

사우디 종교경찰 무타와가 제다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비밀 기도모임을 습격해 42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고 매일선교소식이 전했다.

이 기도모임은 에티오피아인 근로자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고, 연행돼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비밀교회 지도자는 “사우디 당국이 늘 외국인 기독교인 커뮤니티를 단속해 왔지만,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행되면 풀려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행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



이 터지자 또 다른 두 곳의 에티오피아인 신자들의 비밀모임도 한 동안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 美비블리카, 새 아랍어 성경 출간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기관인 미국의 비블리카(Biblica)사(社)가 최근 새 아랍어 성경을 출간했다고 지난달 22일 한국선교정보연구원이 밝혔다.

비블리카사는 아랍어 신약 성경을 녹음하는 오디오 성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약 성경을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반정부 시위로 혼란한 이따에 새 아랍어 성경 출간은 이 지

역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블리카측은 밝혔다.

이 단체는 협력 단체를 통해 아랍어 성경을 제공하여 중동 지역에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돕고 있으며 아랍어 성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약 1-3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 올해는 수십만 권의 아랍어 성경을 중동에 있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비블리카사는 전했다.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헌법파괴적 조례’, 법률전문가 의견

## 기독교학 존립 근거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송두리째 흔들어

초중고생의 동성애·임신 출산 허용 및 정치 활동 합법화

이번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3월 시행을 앞둔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헌법파괴적 조례안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법률검토 의견 = 지난 1월 5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기 100만시민서명은 동 발대식을 주도한 조례 폐지 범국민연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밝힌 ‘조례’의 법률검토서는 교단의 현실을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헌법파괴적 조례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행 헌법상 수용될 수 없는 불건전한 성문화나 동성애를 교육의 현장에서 허용하는 해괴한 조례안으로 반교육적이고 반민족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도 헌법기관간의 법선언 내지 법정립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배나 권력질서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조례안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사상과 정치적 자유와 중립에 관하여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참여권과 심지어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에게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이고 체제 위협적인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 기독교 무력화 정책 = 이번 조례의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독교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주민발의안 15조의 위헌요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종교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강제하며 교사들의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적 타락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출산 허용·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은 초중고생이다. 이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들의 임신 출산을 허용하고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며 교육청에 반문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또 초중고생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 부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

## 좌파 및 동성애인권단체 등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광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보호 등 이유로 추진 불교계의 조계종 봉은사 등에서 '조례' 지지서명 주도 수만명 참여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비롯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부 소수 좌파 및 동성애인권단체 등이 주도, 진행돼 왔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단체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신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노총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인권교육센터과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지난 2010년 7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밟았던 것.

실제로 지난해 초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

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학생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마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몰두해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과 교권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의 생활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이같은 구상에 따라 인권조례 초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다.

이에 앞서 흥세화 진보신당 대표(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는 주민발의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 서울시민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8만2천여명의 청원서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지난해 5월 접수했다. 이같은 청원서 모집에는 이같은 좌파단체와 동성애지지단체 외에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힌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 문제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며 "이는 수많은 기독교 사학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론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2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지난 3월 중순까지 서명은 2만 여장에 불과했다. 이때 불교계가 적극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9일 '특정종교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용지 및 선전물(6만장)을 제작해 서울지역 사찰 및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결국 불교계는 조계사 봉은사 등 시내 주요 사찰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유효서명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8만5000장 이상의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과 대응책

## 인권조례, '미성숙한 다음세대를 볼모로 이용한 속셈' 우려

좌파, 동성애단체들의 지지세력 확보 위한 정치적 투쟁 일환

좌파 성향의 광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본격화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의 배경을 가늠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권.평화.민주'라는 키워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학교생활혁신 추진계획(안)의 슬로건이 '인권.평화.민주'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생활 공동체만들기'이다. 그런 아이디어 아래 잉태된 첫 번째 결과인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애 허용과 초중고생의 임신출산허용과 성생활자유 보장, 정당·정치활동 합법화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인권조례에 대해 한 좌파 성향의 일간신문은 사실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인권,평화,민주'라는 키워드 제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론적 토대 다져

성경, 로마서 1장서 분명하게 경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권리의 주제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복권을 존중하라'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의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례의 주민발의 대표자격으로 제안한 흥세화 진보신당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흥세화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지지 발언을 했다. "자유와 관용을 뜻하는 폴레랑스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핵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적어도 동거권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성숙 단계가 낮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보수 기독교세력의 구시대적인 압박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례제정의 주장 이면에는 이같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동성애 결혼 허용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아직 분별별을 갖추지 못하고 미성숙한 다음세대들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27절을 통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전제한 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이 가는 다음 결과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는 것이다. 문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 죄에 이르게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앞에서는 길밖에 없다. E.M바운즈는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죄인들이 보는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 “바보 같다고 하면... 저 바보잖아요!

##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어요.”

- 하나님 나라의 창고지기  
조상국 집사(영일감리교회)

다양한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관광지 이태원동. 케밥을 비롯한 이국적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JNBY라는 이름의 옷가게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조상국 집사를 만났다. 세상에 대해 망했다고 고백하며 성공한 이야기보다 망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개장을 앞둔 시간, 아내 조희아 집사와 함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눴다.

-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주세요.

“43살의 세 아이의 아버지며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8년 전 모든 사업이 망한 후 주님을 알게 되었고, 3년 전 복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 주님이 이 사업장을 시작하게 하셨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부르신 땅 끝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 어떻게 이곳 이태원의 옷가게가 땅 끝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복음을 만난 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속적으로 느껴졌고 주님이 선교지로 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때 아내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내가 경영하는 옷가게에서 일을 돕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가게는 그때와 다르지만, 이 땅에서 하는 사업을 주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게 된 것이죠.”

- 어떤 과정이나 부르심이 있었나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상태였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선교지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뭔가 생계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이전부터 고백해 왔기에 이곳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터전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놓지 못하던 1%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를 통해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또 복음을 만난 후 제게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망해야하고 주님은 흥해야한다’는 고백이었죠. 복음 앞에 서면서 이미 세상에 대해 망한 자임을 확실히 깨달으며 이 일도 주님께 맡겨드렸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다시 증인으로 서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결단하신 후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순종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매순간 확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군요.”

-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8년 전에는 컴퓨터 유통사업을 통해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돈 관리를 잘못 해서 바닥으로 추락했죠. 강남에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주님을 원망하며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요.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18살에 학교를 그만두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 그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었죠?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지만 커서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망한 후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주님이 만나주셨지요. 돌아보면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심은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후 점점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7년 전 인도네시아 니아스라는 곳을 비전트립으로 다녀왔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죠.”

-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셨나요?

“그곳에서 쓰나미로 부모를 잃은 현지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나를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굶주림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위해 3년 정도 한국의 봉사단체를 통해 섬겼어요. 그런데 기쁨보다는 실망감만 갖게 됐어요. 이후 오히려 더 큰 목마름과 공허함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뭔가 훈련을 받으면 해결될까 싶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결론이 안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셨던 주님이 복음선교관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그 오해를 벗겨주셨어요.”

-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첫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는 완성되었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그 전까지 선교를 제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거죠. 그런데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해야한다는 부담감, 어딘가 오지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 애들

셋과 아내를 데리고 가야하는 부담감 등. 그냥 그 부담감을 제거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 주님 생명 가진 자로 말씀과 기도만 붙들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니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군요.”

- 상호명이 JNBY 인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원래 이름은 Just Naturally Be Yourself (이 옷이 너에게 자연스럽다) 라는 의미예요. 중국의 유명브랜드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 회사의 옷을 한국에서 팔게 되었어요. 그 뒷얘기도 주님이 정말 하신 이야기들은 많지만 줄이고요. 저희는 이 이름을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Jesus Name Best Yourself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쓰여 있는 책갈피를 선물하고 있어요.”

- 직원들 중 대다수가 선교관학교의 훈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웃리치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있을텐데, 매장운영에 어려움 없으세요?

“한 직원이 선교훈련을 받으러 가서 자기 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돌아와서 얘기하더군요. 우리 회사가 다른 것은 안보는데 학력을 봐서 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학교나 선교관학교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말예요. 그래서 학력 채우러 왔다고 고백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저는 정말로 함께 일하는 직원이 복음을 알고, 선교적 존재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1일이면 10여명의 직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돈 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자고. 함께 일하는 분들 대부분은 세상에 대해 망한 사람들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만나고, 선교적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저희에게도 기쁨이에요. 복음 이전의 1%였던 사업장이 지금도 1%가 될 순 없어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죠. 주님 마음 없으면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든 부르시는 선교지로 나가야죠. 직원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 기도제목을 나눠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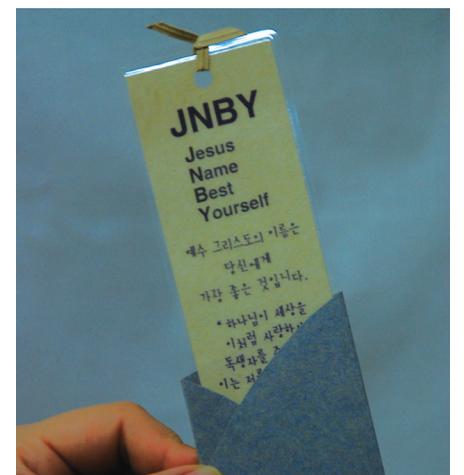
“정말로 주님이 하실 일들 기대해요. 세속적으로 자아추구하던 이 자리에 그분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사람 불러내시고, 복음으로 세우시고, 회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

나고, 복음자체가 열방용이니까 선교적 삶으로 결론 삼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 알려진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100% 세금 신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주님이 이끄세요. 사업의 흥망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복음과 기도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 나타내도록 기도해주세요. 돈에 매여 넘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존재로 서도록 기도해주세요. 경제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창고지기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 민감한 얘기 같지만 듣고 싶네요. 100% 세금신고에 대해 조금만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던 문제였어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던 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제도에 따라 다 따져 내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1%를 주님이 받아내셨어요. 믿음 재정으로 살면서 따로 부동산이나 저축 등도 정리했기 때문에 생활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매번 저의 마음을 다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일깨워 주셨죠. 왜 하나님이 세운 세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지키면 망한다고 말해요. 아는 분들도 왜 꼭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결론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물러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리점들도 함께 동일한 원리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저 주님이 제게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고, 그래야 제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바보 같다고 하면... 저 바보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어요. 나는 망하고 주님만 흥하는 삶으로 주님만 따라 갈겁니다.”

Y.D



# 2012 느헤미야52기도, 지역 연합모임으로 일어나

### 경북 영덕, 경기 안산, 도미니카 현지인들 중단없는 기도에 참여 5년째 이어지는 24시간 일주일 연속기도 ... 연중 무휴 기도신청 받아

2008년부터 시작한 느헤미야52기도가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012년 초 국내외에서 연합기도의 가시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경북 영덕에 위치한 영덕읍교회(담임 김주원목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며, 24시간 365일 열방을 구하는 쉬지 않는 열방기도센터라 선포하고, 24시간 기도를 시작했다.

김주원 목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다른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았다.”며 “이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교회가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함을 깨닫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를 포함 교역자들이 중심축이 되어 연속,연쇄 기도의 한 삽을 뜬 이 교회는 2012년 1월 2일부터 52일간 느헤미야 52일기도를 다짐들로 삼아 매일 24시간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재 매일 7개의 지역교회에서 70여명의 기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기도에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연합기도의 불길은 이미 작년 6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지역교회들의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이어져왔다.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안산시 지역교회 연합은 현재 36개의 교회가 참여했고, 2012년에는 이미 참여했던 교회들이 다시 동참해 한주 144시간씩을 맡아 기도의 자리를 파

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올 1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2차 느헤미야52기도를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진행한다. 이 일을 섬기는 전제덕 선교사는 “산티아고에서 지난해 8월15일부터 52일간의 이미 느헤미야52기도를 경험했던 기도자들이 자동차로 무려 7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소식을 알려왔다.

한편, 2012년을 시작하는 기도24365본부는 느헤미야52기도정보 책자의 다섯번째 판을 새롭게 출간해 최근 소식을 가지고 기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가 더욱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이 실재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기도책자는 1월 말에 출시 될 전망이다.

올 1월 첫 주에 거진감리교회, 나무와씨앗교회, 청주임마누엘감리교회가 참여했으며, 둘째 주는 동산의샘교회, 셋째 주는 열방선교센터, 넷째 주는 민족사랑교회,



큰사랑 큰행복교회, 다섯째 주는 원주성광교회가 기도의 분깃을 감당할 예정이다.

느헤미야52팀의 최신판 선교사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교회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께 순종할 교회는 느헤미야52팀에 신청하면 지금도 참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010-4192-4365, 070-7417-4366~7, www.prayer24365.org

## 기도의 능력

### 기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편집자>

만일 두 천사가 도시에 하나님께로 부터 명령을 받는데 한 천사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큰 제국(帝國)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다른 천사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천한 마을의 거리를 청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하자. 그것이 통치자의 직책이든 청소부의 직책이든 그것을 부과 받은 천사에게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천사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있는 것이다. - 존 뉴튼

겸손하다는 것은 자아에 대하여 그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것이다. 겸손은 타인의 눈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겸손은 자아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타인에게 눈을 돌린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행위가 온유한 것이며 마음이 낮은 것이다.

기도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은 겸비한 지성이다. 자기 인정과 자기 칭송의 교만은 기도의 문을 굳게 닫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자만으로 부풀어 있거나 자신의 의와 선에 대한 과대한 평가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된다.

교만이나 허영은 기도할 수 없다. 그렇지만 겸손은 허영과 교만이 없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적극적인 질(質)이며 실질적인 힘으로 기도능력을 공급한다. 바리새인은 비록 기도를 배웠고 기도의 습관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에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교회로부터도 동정을 받지 못했지만 겸손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이 주장할 의와 자랑할 자신의 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겸손은 우리의 죄악성과 무가치성에 대한 참되고 깊은 의식의 토양에서 자라난다. 죄책감을 느끼며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은혜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만큼 그토록 빨리, 무성하게 자라며 밝은 빛을 비추는 때는 없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이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기도의 밑바탕이며 겸손의 바탕이며 낮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의 낮은 곳을 사실은 높은 곳이 되게 하신다.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

## 기도의 삶

### 순종하고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자리 순종하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의 '기도의 자리'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믿는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며, 특권이다. 지난 2011년 마지막 달 12월에 이뤄진 느헤미야52기도 참여자들의 기도 후기를 모았다.<편집자>

####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짐바브웨로 땅 밟기 기도원정을 가기 전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불러 주셨다. 땅 밟기 준비로 여러 가지 걱정과 분주함으로 정신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번 느헤미야52 기도에 임할 때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다. 행위만 있고 마음 중심이 없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셨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

강혁건

#### 믿으면 영광을 보는 자리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의 문제가 쉽게 내 문제로 와 닿지 않았고 나로서는 열방과 연합되기에 너무나 힘든 자임을 보게 하셨다. 그런데도 나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시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셨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미 말씀하시고 성



취하신 주님만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임  
을! 아멘!

조형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나오기 까지는 너무 어려운데 순종하고 나오면 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에 수많은 문제들 -범죄,질병,음란,살인,폭력,기근,재난,전쟁 등- 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닌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온 열방을 깨끗케 하시며 회복하실 그 날

을 기대한다!

이정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은혜

처음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았을 때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옛 자아의 반응이 여지없이 솟아 올라왔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지 혹여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의 실체를 드러내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은혜. 껍데기뿐인 열심을 가지고 달려온 나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한다. 이 고백을 받아내신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준섭

### 2012년 1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 3주차 (1월16-21일)  
열방선교센터-느헤미야 강욱주전도사

▷ 4주차 (1월23일-28일)  
민족사랑교회(서울 용산)-느헤미야 유수영 목사  
큰사랑큰행복-느헤미야 이필규 목사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 초중고생의 종교교육 거부, 임신·동성애 권리 부여한 인권조례 '논란'

기독교 학부모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제시하며 '폐지' 운동 본격화  
전교조, 민변, 조계종 등 33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발의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동성애 허용과 임신·출산,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거부 등의 권리를 규정한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지난해말 서울시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교 학부모와 관련단체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집단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르면 1월초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란 = 전교조, 민변, 좋은 교사운동,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등 33개 단체의 인사들이 주도한 학생의 각종 인권 보장을 제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가 따르도록 하는 조례.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는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

유보장 등의 내용이 학교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친 자율과 권리를 담아,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시켜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무엇이 문제인가 =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과 함께 △임신, 출산, 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교내 집회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음란서적 등을 학내에 반입하더라도 불시 검문할 수도, 압수할 방법이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지는 취지의 성적 지향 보장 조항이나 청소년 임신 출산 조항은 아직 성(性)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연령대의 가치관 형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선교와 교육을 '강제'라는 말로 왜곡하고 있으며, 종교과목 대



신 복수과목 편성, 예배 선택권 보장, 교회의 선교협력 금지, 교사의 선교 금지 등의 조항을 삽입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책과 전망 =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는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교칙을 바꿔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9일까지 재의 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1일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과

함께 조례안의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이뤄지면,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재의요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재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의회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당론으로 지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10년째 기독교박해국가 1위 고수

오픈도어선교회, 2012년 기독교 박해국가 발표

지난해 말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는 여전히 '북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10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박해지수도 2위보다 20 포인트 가량 높은 88이다.

오픈도어선교회(공동대표 김성태, 신현필)가 발표한 '2012년 기독교 박해국가(World Watch List)'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독교인에 대한 폭압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 보인다.

선교회는 북한에 20~40만여명의 지하 교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3대 세

습을 꾀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한 종교 자유의 길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10대 기독교 박해지수 국가는 1위 북한에 이어 2위 아프가니스탄,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소말리아, 5위 이란, 6위 몰디브, 7위 우즈베키스탄, 8위 예멘, 9위 이라크, 10위 파키스탄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2위였던 이란이 5위로 내려간 것이 눈에 띄며, 북부 나이지리아는 23위에서 13위로, 수단은 35위에서 20여 계단 상승한 16위로 박해 정도가 심해졌다.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음학교 개최

1월말까지 접수, 섬김이도 함께 모집

문화행동 아트리가 주관하는 제3기 청소년 문화복음학교가 2월 22일에 개최된다. 3박 4일간 열리는 이번 문화복음학교는 복음에 대한 강의와 연극을 통해 복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수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메일)로만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12년 1월 31일(화) 지정까지. 이번 학교를 섬길 섬김이 모집도 함께 받는다. 신청기간은 2월 5일(주일)까지. <http://cafe.naver.com/youthaccess> 참조 ☎ 010-265-24365, [artree@paran.com](mailto:artree@paran.com)

### T&R 제3기 교회개척선교사 훈련학교 훈련생 모집

티앤알미션(T&R Mission)은 제3기 교회개척선교사 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된 교회개척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순회선교단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 및 순회선교단 훈련학교(복음선교관학교, 중보기도학교, 복음사관학교) 중 한 학교 이상 수료자. 훈련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모집기간은 1월16일(월)부터 2월15일(수)까지. <http://cafe.naver.com/tnrmission> 참조 ☎ 032-889-0221, 010-4929-4641

### 복음사관학교, 10기 훈련생모집

복음과 기도의 견고한 두 기둥을 세우고, 복음의 삶으로 체질화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복음사관학교가 10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수료자 및 공동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훈련 기간은 2012년 3월에서 8월 까지 약 6개월(23주)의 일정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31일 까지. 원서는 순회선교단 웹사이트([www.wmm119.org](http://www.wmm119.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033-342-4531, 010-2004-4641, [gna@wmm119.org](mailto:gna@wmm119.org)

## 「2012느헤미야52기도」 참가 신청받습니다!

한 회에 한 주간씩, 52주 연속, 연쇄, 연합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느헤미야52기도」가 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서는 일은 한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 집니다. 2012년 기도의 등불을 밝힐 느헤미야(기도주관자)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 신청 자격 : 교회나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교회, 단체 대표의 동의가 필요)
- 접수기간 : 순회기도팀 요청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요망

2012느헤미야52기도를 앞두고 '다섯번째 느헤미야52기도정보'가 발간됩니다. 출간일은 2012년 1월말 예정.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권 구입시 6,000원. 6권 전체 구입시 30,000원.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2012느헤미야52기도」 참여는 기도24365본부 웹사이트([www.prayer24365.org](http://www.prayer24365.org))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느헤미야52팀 ☎ 010-4192-4365, 070-7417-4366~7



주님이 하셨습니다

## ‘래디컬’한 삶을 기꺼이 살기로 하다 …그리고 편히 예수 믿다가 죽을 생각이 사라졌다

얼마 전 서점에서 <래디컬>이란, 조금은 꺼림칙한 제목의 책을 훑어보게 됐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작가는 그렇다 치고, 이 책을 만든 출판사는 도대체 책을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래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 책의 서두에서 자신을 ‘최연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한다. 주변 사람들은 폭발적인 부흥에 목회의 목표를 두라고 얘기했고, 어느덧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할 때, 이름이 거론되는 이른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롤 모델로 삼은 목회자는 아 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출석교인 수와 예배당의 크기로 성공을 가능케 하는 이 시대의 교회문화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급진적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소수를 사용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던 목회를 선보이셨다. 대형과 소수, 그 간극 사이에서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둘째,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한다. 세상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공을 추구하며 지

금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담대하게 묻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를 지적하는 ‘회개’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설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담되는 설교는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말씀은 말씀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한다. 나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정말로 가능한가 궁금해졌다. 저자는 주님을 믿는 것과 목숨을 맞추는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시아 지하교회의 실상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교한다.

수많은 험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한다. “예수님은 무얼 두려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그러면서 맘몬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미국의 교회에서도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실험한 실제 사례들을 들려준다. 브룩힐즈교회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시간에 들은 말씀에 도전 받아 강도 높은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은 가치관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보장된 미래를 과감히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노후와 미래의 안락함 대신 가진 것을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장년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자신들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고백으로 토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도전한다. 이 꿈을 위해 살 준비가 됐는가?

‘그 날이 왔을 때,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많이 여가를

즐기고, 더 오래 텔레비전을 보고, 더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서운해 할 것 같지도 않다. 대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할 것이다.’ 소망이 생긴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꺼림칙한 제목의 <래디컬>을 다 읽고야 말았다. 그리고 편히 예수 믿다가 죽을 생각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 제시하는 래디컬한 삶과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음이 실체가 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래디컬’한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꼭 막힌 사람으로 기꺼이 치부되면서라도 말이다.

최정혜 사모(전주온누리교회)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벤허』

##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벤허”

1959년 아카데미 작품상 및 11개 부문 수상, 당시로는 파격적인 액수인 당시 1,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초호화 스펙터클 대작. 그 때까지 세워진 거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은 명화. 이것이 영화 벤허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영화의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에서 예수님의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물론 등장은 하지만 얼굴도 아닌 뒷모습만 나온다. 표면적인 내용은 로마를 배경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귀족 벤허가 겪는 시대적 고난과 절망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박진감 넘치는 마차경기 장면이 3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예수님은 중간에 아주 잠시 등장하실 뿐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 벤허의 주제는 증오, 분노, 복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 사랑, 화해로 바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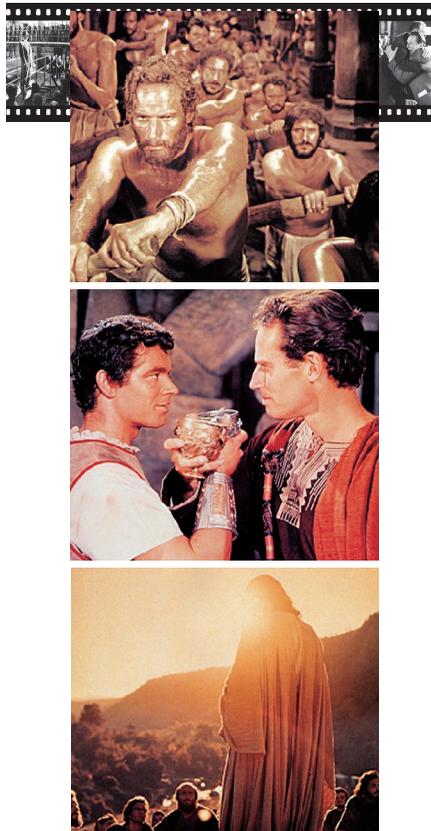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마저 팔아먹은 호민관 멧살라. 그리고 유대 민족을 배반하지 못해 결국 누명을 쓰고, 군선의 노를 짓는 노예로 전락하는 벤허. 이 둘의 갈등관계가 큰 축을 이루며 영화를 이끌어간다. 원수 멧살라에게 복수할 생각만으로 비참한 시간을 이겨내는 벤허,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심을 얻으며 가장 소망 없던 노예에서 최상위 지위로 오르는 기적을 경험한다. 꿈꿀 수도 없던 모든 것을 얻은 그였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가족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미 가족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다.

복수를 해도 상황은 변할 것이 없지만 멧살라를 복수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마차경기에서 그에게 복수하게 된다. 결국 멧살라를 무릎 꿇게 한 벤허는 사고를 당해 죽게 된 멧살라를 통해 그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 있으며 현재 문둥이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노예의 때보다 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는 벤허. 분노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결국 멧살라에게 복수하지만, 진짜 그를 없애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원수나, 로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도저히 벗어날 수 운명의 무게 앞에 절망한다.

드디어 노모와 여동생을 만났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 노예로 끌려가다가 목 말라 죽을 뻔 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며 그 순간, 그에게 찾아와 물을 주셨던 분을 기억한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완고히 찾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찾아 나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처형받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고 있으셨고 결국 골고다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며 그가 바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에게 물을 주셨던 그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의 가족들이 치유함을 얻고, 그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벤허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은 보이지 않으나 그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벤허는 주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야 깨닫는다. 어느 누가 뽑은 명대사처럼 “누군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을 예수님이 자신께로 이끄신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며 그럼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본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2012년이 시작됐다.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실 것을 믿는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한 순간도 내게 없음을 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역선, 어드벤처 | 미국 | 벤허 | 212분 | 12세 이상 관람가 | 1959)

### 후원자 명단

(2011년 12월 23일 ~ 2012년 1월 2일)

가나다 순)

△개인

김남순 김남분 김영태 민용기 박경희 박순미 박인원 박태일 유수경 윤석주 이복순 이영미 전희복 정성국 정영훈 지병용 홍승표 무명1

△교회 및 단체

기쁜소리교회 나무와씨앗교회 예수전도단출판부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 김송이(복음기도신문)

### 선교사님의 기도편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도편지는 선교지의 상황이나 기도제목을 통해 쉽게 이해되어 기도될 수 있도록 기사화되어 신문 지면에 소개됩니다. 물론 민감한 내용은 신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